

야의 액티비티

「시레토코」라는 이름은 일본 북방 영토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의 말로 「땅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레토코 반도에는 산이 많고 우거진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해안에는 거대한 바위나 층암절벽이 이어집니다.

아이누 민족이 이 땅을 「시레토코」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웅장한 경치 때문일 것입니다. 라우스초에서는 하이킹과 가이드가 포함된 투어를 통해, 시레토코의 기복이 많은 지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반도를 탐색

라우스초에서는 암석 지대가 많은 해안선을 관광하는 투어 보트나 시즌 중에는 네무로 해협이 깊은 바다로 향하는 웨일 워칭선에 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4월~10월에 고래나 돌고래가 서식합니다. 또한 숲속을 걷는 하이킹 코스나 화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라면 유빙 아래에 잠수하여 겨울 바다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누 민족 신들의 마을

시레토코 반도는 아이누 신화에 등장하는 세 신(가무이) 불곰, 블랙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 범고래의 서식지입니다. 이러한 동물은 아이누 민족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지역을 보호하는 존재로, 아이누의 생활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에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관찰 투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